

제6회 지방선거 밀양시장 박일호 당선

“밀양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밀양”으로 보답할 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밀양시장에 새누리당 박일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의 영예를 안아 새로운 시정을 책임지게 됐다.

박 당선인은 지난 5일 오전 4시 99.98%의 개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3만2천206표(67.01%)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무소속 김영기·우일식·이태권 후보는 각각 1만7천847표(31.59%), 2천 523 표 (4.46%), 3 천 907 표 (6.91%)에 그쳤다.

박일호 당선자는 “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박일호를 믿어주시고 밀양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박일호 당선자는 “저를 뽑아주신 시민여러분의 고마움에 반드시 보



답해 드리겠다는 소감과 함께 밀양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 여러분의 희망이 당선으로 이어진 것이고 저 박일호의 당선은 밀양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벅찬 감동을 전했다.

또 “지난 1년 반 동안 밀양의 구석 구석을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밀양의 미래를 걱정해주시며 저를 격려해주신 많은 시민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박일호는 앞으로 오직 밀양발전을 위해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의 문화도시

밀양, 밀양의 자긍심을 높이고 밀양을 다시 살기 좋은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첨단산업과 교육, 농업과 유통, 농업과 문화관광, 교육과 인구증가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융합발전을 통해 각 분야를 복합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고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새로운 밀양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경쟁한 타 후보자와 지지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밀양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말로 소감을 마무리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개표 결과



투표결과

구 분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비 고
밀 양	61,584	67,895	82.3	창도동(79.3) 내서동(84.1)

개표결과

구 분	박일호	김영기	우일식	이태권	비 고
득 표	32,212	17,859	2,523	3,907	
득표율	(57.0%)	(31.6%)	(4.5%)	(6.9%)	

구 분	홍준표	이종걸	정동영	비 고
득 표	34,034	13,739	2,812	
득표율	(57.0%)	(28.0%)	(5.0%)	

구 분	박정호	고영환	정영호	비 고
득 표	22,037	16,764	16,483	
득표율	(39.8%)	(30.3%)	(30.0%)	

구 분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제3선거구	제4선거구	비 고
득 표	16,433	15,889	12,761	11,300	
득표율	(57.5%)	(47.5%)	(53.0%)	(47.0%)	

구 분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제3선거구	제4선거구	비 고
득 표	5,114	3,334	2,366		
득표율	(47.6%)	(28.6%)	(22.3%)		

구 분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제3선거구	제4선거구	비 고
득 표	4,331	3,049	1,147	609	
득표율	(38.7%)	(26.7%)	(10.1%)	(5.3%)	

구 분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제3선거구	제4선거구	비 고
득 표	3,881	2,489	2,588		
득표율	(49.7%)	(27.6%)	(29.7%)		

구 분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제3선거구	제4선거구	비 고
득 표	2,280	1,945	3,383	1,284	
득표율	(17.6%)	(12.6%)	(23.6%)	(11.3%)	

구 분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제3선거구	제4선거구	비 고
득 표	3,022	2,390	2,141	2,066	
득표율	(37.82%)	(22.8%)	(20.4%)	(19.7%)	

밀양아리랑 전문교수 초빙 학술세미나 개최

밀양아리랑의 저변확대 기여



119동요경연대회
 밀양수산초 금상
 미리별초 병설유치원 은상

밀양소방서(서장 전종성)는 지난 17일 경남MBC공영홀에서 열린 제11회 경남 119소방 동요 경연대회에서 시 대표로 출전한 수산초등학교와 미리별초 병설유치원이 금상과 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남 도내 14개 유치원과 13개 초등학교 등 27개 합참팀 1000여명이 참가해 가창력과 율동으로 치열한 경연을 펼쳤다.

전종성 서장은 “어린이들이 즐거운 노래를 통해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다”며 “대회준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준 어린이들과 지도교사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밀양아리랑의 저변확대와 전승보존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밀양아리랑 보존회(회장 박희학)에서 지난 13일 밀양시립도서관에서 문화예술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아리랑 유네스코지정을 기념하며 밀양아리랑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의미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 시각을 통한 밀양아리랑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아리랑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위상을 정립하는데 큰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는 “아리랑 쓰리랑의 어원에 관한 연구(우일식 항공대교수)” “북한에 전승되는 민요 아리랑 연구(단국대 김영운 교수)” “밀양아리랑의 지역성과 세계화연구(기미양 벤처아리랑 대표)” 순으로 발표와 함께 안병훈 밀양문화원 원장, 박영호 밀양예총회장, 장창걸 밀양향토청년회 회장 등의 질의 순서로 진행됐다.



세미나의 진행은 밀양아리랑 보존회 학술연구분과 서정매(부산대 강사)의 사회로 3시간에 걸쳐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밀양아리랑 가사200선을 엄선한 가사집을 발간 배부했다.

이 가사집은 김금희, 장병수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 공동 추진위원

장과 박희학 밀양아리랑보존회장이 공동 발행하고 편집에는 장현호 사무국장과 서정매씨가 각각 맡아 편찬했다.

200선가사집에 이어 신 구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밀양아리랑 가사집 발간을 앞두고 있다.

한편 박희학 밀양아리랑보존회장은 “그동안 밀양아리랑보존회

에서는 도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밀양아리랑 가사집 발간 등 많은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이번 학술세미나는 밀양아리랑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큰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더욱 밀양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를 전승 보존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박일호 당선자에게 묻는다

2면

마산고 40회 박일호 동문의 밀양시장 당선 축하합니다

마산고등학교총동창회 Masan H. School Alumni Association 재밀양 마산고등학교 동문회 회원 일동

조해진 의원 ‘5월 국회 베스트의원’ 선정

성실한 입법활동·상임위 소관법안 처리 공로 인정

조해진 의원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의정모니터단이 선정한 '5월 국회 베스트 의원'에 뽑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의정모니터단은 10년 전통의 의정모니터링 단체로서, 매 달 300명 국회의원 전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그 중 1인을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DMB 재난 방송 의무화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킴으로써 재난방송과 이

를 위한 방송수신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범죄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범죄 피해자, 증인, 신고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막고 이들을 보호·지원 하기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 역시 높이 평가받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서는 그동안 상임위에 묶여 있었던 주요 법안들의 일괄처리에 최선을 다한 점

을 인정받았다. 조 의원은, “국민생활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찾아내어 발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지난 1년 동안 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쟁점에 발목이 잡혀서 제 때 처리되지 못하고 산적해 있던 법안 120여건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다. 앞으로도 좋은 법안,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재난관리 체계를

전문가·현장중심 재구성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재난관리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재난은 평소 예방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사고 수습과 정에서 전문가와 현장이 배제된 대응체계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빚발쳤으며, 재난관리 체계가 전문가와 현장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재난대응 전문요원을 배

치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및 체계적·전문적인 재난대응을 하도록 하는 재난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 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대응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러한 전문요원의 자격, 배치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대응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 및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조의원은, “이번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재난대응 전문요원의 지휘 하에 신속한 초동조치만 이루어졌어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런 가슴아픈 비극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관리 체계를 전문화, 체계화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깨끗한 수돗물 공급 노력

정수지 등 정기청소 실시

밀양시(시장 엄용수)는 수도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지 및 배수지는 5월 14일부터 30일까지, 침전지 2개소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청소를 실시했다. 교동정수장 정수지 및 배수지 4개소는 매년 정·배수지 청소계획에 따라 정수지는 1회, 배수지는 2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기간 동안 수돗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침전지 청소는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수슬러지를 제거하는 것으로 매년 6회 실시하고 있다. 한 방울의 수돗물도 아껴 쓰기 위하여 급배 정·배수지 청소시 정수지 내부 노후배관 교체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시-러시아 IMT-RAS

‘나노융합산업 활성화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밀양시(시장 엄용수)와 러시아 IMT-RAS(러시아과학기술 산하 마이크로 전자기술연구소)는 지난 23일 18시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밀양 나노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엄용수 밀양시장,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IMT-RAS 연구실장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나노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학적·학문적 상호협력과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밀양 나노융합기술 분야의 연구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이를 위한 연구원, 관련전문가와 학생 등 인력교류를 통한 상호협력, 공동세미나·워크숍 등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두 기관의 협으로 향후 밀양 및 러시아의 나노융합산업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하

나노융합 기술 분야 연구협력·인력교류 등 약속



고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와 나노관련 기업체의 기술 지원과 공동 연구개발, 인적 교류 등 향후 역

밀양 ‘남천스쿠버클럽’ 유천 빈지소 수중 대청소

밀양에서 재능기부… 또 다른 봉사영역 선례

밀양 남천스쿠버클럽(회장 강기수) 회원들은 지난 6월1일 유천 빈지소에서 啓海祭(啓海祭)를 겸한 밀양 강 정화 활동을 시행했다. 설립 된지 18년의 기간 동안 수상 인명구조 지원, 수중 정화활동 등 지역에서 매년마다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바람직한 재능기부의 형태를 선도하고 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행사에서 회원들은 수중에 방치되어 있

는 오물 및 쓰레기 등을 스쿠버장비를 착용하여 직접 물속에 들어가 일반인들이 수거할 수 없는 수심이 깊은 수중에 있는 생활쓰레기들을 제거함으로써 밀양의 하절기 관광 명소인 유천 빈지소가 부분적으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 밀양은 다른 지역보다 강을 끼고 발생된 농사문화가 도시발전의 근간이며 첫 줄기이다. 그렇다 보니 밀양시 전역에 하천

과 계곡이 많아 하절기에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물놀이 익사자 발생이 빈번히 많다. 그만큼 행정적 부담이 많이 되는 지역이다. 창립이후 밀양소방서 수상구조대와 함께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매워 주는 의사자 구난 지원 등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지역에 있는 민간 단체로서의 역할을 자리에매기 해오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남천스쿠버클럽 회장 강기수씨는 “직접 물속에

들어가 보면 오물도 오물이지만 수질이 엉망이다. 그 원인이 경복 운문담과 하천의 보가 그 원인이다. 자연은 그대로여야 하천의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데 인위적인 손길이 자연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서 현재 빈지소 강바닥엔 펄층이 40cm정도 쌓여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강과 하천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의 말을 전한다. 스쿠버 활동은 장비를 동원하여 할 수 있는 레저이므로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교육인력이 필수라야 할 수 있는 레저이다. 남천스쿠버클럽은 오랜 역사만큼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과 전문교관인력 자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 유일 단체이다.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들어가 보면 오물도 오물이지만 수질이 엉망이다. 그 원인이 경복 운문담과 하천의 보가 그 원인이다. 자연은 그대로여야 하천의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데 인위적인 손길이 자연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서 현재 빈지소 강바닥엔 펄층이 40cm정도 쌓여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강과 하천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의 말을 전한다. 스쿠버 활동은 장비를 동원하여 할 수 있는 레저이므로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교육인력이 필수라야 할 수 있는 레저이다. 남천스쿠버클럽은 오랜 역사만큼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과 전문교관인력 자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 유일 단체이다.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밀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랑 나눔 고구마 심기’ 이웃사랑 실천

밀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박정애)는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동면 안인리 소재 2,640㎡ 규모의 휴경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돌과 잡초제거, 이랑만들기, 비닐씌우기 작업 등을 한 뒤 5월 28일 무더위 속에서 어려운 이웃에 전할 사랑 나눔 고구마 심기 행사를 가졌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원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재배하여 수확한 고구마는 10월경 저소득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박정애 회장은 “매년 휴경지를 이용하여 고구마 심기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정이 지속되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



다.”고 말했다. 밀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2011년부터 매년 휴경지를 이용해 수확한 고구마를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고 있다.



생활개선밀양시연합회(회장 김희좌)는 지난 5월 24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12명의 읍면생활개선회장이 참여하여 산내면의 한 농가에서 사과재와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산내면은 대부분의 농가가 사과재배를 하고 있어 매년 5월~6월 적과 시기에 노동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읍면지역 생활개

선회장의 자발적 참여로 일손돕기를 실시하였으며, 점심식사를 준비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적과작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손지원을 받은 농가주는 “사과 적과 작업은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으로 일손 부족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생활개선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밀양시생활개선회 김희좌 회장은 “바쁜중에도 자발적으로 일손돕기에 참여한 읍면지역 생활개선회장의 모습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진정한 생활개선회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당

축

선

박일호 밀양시장 당선 축하합니다



쇼드림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박찬
소속가수 알맹

다비드 커뮤니케이션즈
조종훈

아트
장주은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회장 윤영채

대한건축사회 밀양건축사
회원 일동

박대영 산림행정사
대표 박대영

밀양아리랑 보존회
회장 박희학

사)한국에총밀양지회
지회장 박영호

주진호 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재영

“기생 문심의 밀양검무 조선 문인을 사로잡다”

제11회 밀양검무 정기공연 대구 시민 눈길 사로잡아

밀양검무보존회가 대구지역에서 제11회 밀양검무 정기공연을 펼쳤다. 2004년 밀양에서 첫 회를 맞은 후 서울과 부산, 성남 등 전국을 돌며 매년 정기공연을 해왔다. 이번 무대는 지난14일 오후 7시 봉산문화회관 가운데에서 선보였다.

밀양검무를 보면 마치 검술을 보는 듯한 생각이 든다.

두 명의 무용수가 장검을 들고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한다. 검을 공

중으로 던지고 받거나 내용맹이치기도 한다.

무예적 요소가 돋보이는 것이다. 조선 후기 기녀들이 추던 검무의 원형이라고 알려져있다.

이번 무대에선 경북예고 강사인 노한나와 밀양검무보존회 회원들이 출연했다. 또 김은희 밀양검무보존회장은 이매방류 ‘승무’를 선보이며, 회원과 함께 박금슬류 ‘호적살풀이춤’도 공연했다. 호적살풀이춤은 특히 무게있고 호탕한 춤사위로 유명하다.

대구지역에서 활동중인 한국무

용가들의 다양한 무대로 마련됐다. 추현주 DO무용단 대표의 권명화류 ‘소고춤’, 구관영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의 이매방류 ‘살풀이춤’, 손혜영 대구가톨릭대 외대교수의 한영숙류 ‘태평무’ 등이 연이어 무대에 올랐다.

18세기, 유명 권번에서 밀양검무를 추며 문인들을 사로잡던 기생 ‘문심’의 밀양검무를 보존전승하며 1988년 전통무용가 김은희는 밀양검무보존회를 만들어 이 춤을 복원해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밀양검무보존회 회원들이 밀양검무를 추고 있다. <밀양검무보존회 제공>

유럽 소프라노가 부르는 밀양아리랑 ‘세계가 하나 된 듯’

유럽 정상급 성악가가 한국어로 가곡을 부르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화희오페라단이 지난 6월 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평화음악회 아리랑’에 세계적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폴리나가 특별 출연해 우리 가곡인 ‘밀양아리랑’과 ‘그리운 금강산’을 한국어로 열창했다.

지난해 처음 열린 ‘평화음악회’는 세계적 성악가들이 우리 전통 성악인 가곡(Gagok)을 한글 노랫말로 부르게 함으로써 침체된 ‘가곡’이라는 장르의 우수성을 재발견하고 대중화를 시도한 동시에 ‘클래식 한류’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성공에 이어 올해 무대를 기획한 강윤수 화희오페라단 단장은 “이탈리아의 칸초네, 프랑스의 샹송처럼 한국의 가곡이 세계 각국의 무대에서 불리길 바란다”고 소개했다.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출신으로 현재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의 주역 가수인 가리폴리나는 지난해 ‘플라시도 도밍고 오페라리아 국제 콩쿨’

화희오페라단 ‘평화음악회 아리랑’ 6월 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서



지난해 열린 제1회 ‘평화음악회’의 한 장면 /사진제공=화희오페라단

에서 우승해 주목 받았고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사랑의 묘약’에서 주역을 맡았다. 이날 공연은 장윤성의 지휘로 바리톤 고성현, 테너 김남두, 베이스 전준한 외에 네덜란드 출신 소프라노 안젤리나 루차판테, 러시아의 소프라노 나탈리아 아타만쥬크 등이 노래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밀양연극촌 성벽극장

상설 주말 공연 시작

밀양연극촌(밀양시 북부면 창밀로 3097-10)은 밀양연극촌이 자랑하는 야외공연장에서 5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성벽극장 상설 주말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성벽극장 상설 주말 공연은 6작품 13회 공연으로 이루어진다. 성벽극장 개관 공연인 〈안데르센〉은 덴마크 수교 55주년 기념 공연으로 오는 6월에 국립극단에서 공연되는 작품이며 〈피의 결혼〉은 폴란드 아메리카노 국제연극제에 초청된 작품으로 주로 중앙에 편중되어 있는 공연을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들로 구성된다. 어린이음악극단 반달의 〈미운 오리새끼〉와 청소년 성장뮤지컬 〈천국과 지옥〉, 우리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오구〉와 〈산너머 개똥아〉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연극을 보며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티켓요금은 일반 2만원, 만24세

이하 1만 5천원, 만18세 이하 1만원, 4인 가족은 4만원이며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이나 예매는 밀양연극촌(055-355-23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벽극장 상설 주말 공연 일정

▷28일 = 〈오구〉 신명나는 굿판과 노모의 죽음, 초상집 장면 등을 통해 우리의 전통과 해학을 볼 수 있는 토종 코메디 ▷7월 5일 = 〈미운 오리새끼〉안데르센의 대표적인 미운 오리새끼를 각색한 작품, 밀양의 어린이음악극단 반달 공연 ▷12일 = 〈천국과 지옥〉오르페우스의 원곡인 〈지옥으로 간 오르페우스〉를 각색하여 만든 청소년 뮤지컬 ▷19·8월 16일 = 〈피의 결혼〉 20세기 최고의 음유시인이라고 칭송받는 스페인의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원작 작품으로 우리의 판타지와 스페인의 플라멩코가 만나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23일·30일 = 〈산너머 개똥아〉 아기장수 설화를 모티브로 한 전통 인형극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제13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A’등급 획득

밀양시(시장 엄우수)가 주최하고 밀양연극촌이 주관하여 개최한 제13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2013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은 공연예술 행사 지원사업 및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 사업 44개 행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평가에서 A(매우우수)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계획 및 비전, 사업운영 및 내용, 운영성과, 예술기여도 4가지 영역을 최고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15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눠 이루어졌다.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계획 및 비전 영역에서 98점을 받는 등 모든 영역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면서 종합평점 94점으로 A(매우우수)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가대상 행사 44개 중 연극분야

는 19개로 그 중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유일하게 A(매우우수)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시민대중 속으로 열리는 삶의 연극이라는 확고한 예술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축제로 지역 내 민·관·기업 등의 협력과 지역민들의 축제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차장 공간 확보와 관광안내소 신설 등 관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보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2001년부터 시작돼 매년 7월말~8월초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며, 올해 14회를 맞이하게 된다.

제14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2014년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16일 동안 ‘21세기에 왜 축제가 필요

한가?’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상동면 밀양아리랑 플래시몹 ‘인기’

상동면(면장 정태호)은 지난 6월 10일부터 여가활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밀양아리랑 플래시몹 강화를 개설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밀양아리랑 플래시몹은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감동을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밀양 교육지원청에서 개발했다.

아리랑의 매끄러운 소리와 밝은 소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음악과 밀양 백중놀이 범부춤 등 전통 춤사위에 신세대 댄스를 접목시킨 동작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플래시몹 강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기다 보니 농사일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동면은 이전에도 라인댄스교실이나 요가교실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활기찬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구독신청 · 광고문의
TEL 055)351-3211

시립박물관 향초회 문화유적 현장 학습

밀양시립박물관 도우미회(향초회 회장 박정희)는 6월 10일 창립 5주년을 맞아 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문화유적 현장학습을 경남 창원군 우포늪 등지에서 실시했다.

도우미회는 시립박물관에서 실시한 전시해설자양성교육, 시립박물관 및 문화관광도우미 양성교육, 시립박물관대학 등 각종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 중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다.

총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향초회는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밀양 관내는 물론 인접 시군지역의 문화유

적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학습과 함께 문화재주변 환경정화활동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실시한 문화유적 답사는 창녕 우포늪과 산토끼 동요 발생지, 창녕 박물관에서 현장학습이 진행되었으며, 현장 안내와 해설은 창녕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박정희향초회장은 “7월 현장학습은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덕사를 방문할 예정이며, 회원들이 많은 문화유적에 대한 현장학습을 통해 관련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나는 재비다 Flying Jebi

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연구소
여쿠스틱 앙상블 제비

2014. 7. 3(목) 16:00
밀양시청 대강당

프로그램 소개 Program

1. 제비는 어디로 갔을까?
2. 금디레굴
3. 악기소개
4. 여유
5. 사물놀이
6. 궁대가
7. 강화신문 제비
8. 민취
9. 재비모리



단체소개 Company

10년의 짧은 예술연들로 구성된 '여쿠스틱앙상블 제비'는 2009년 창단된 이후 2011년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 2012년 열방악회와 노원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선정, 2014년 상주단체 제 선정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팀입니다. 우리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공연대를 형성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꿈꾸는 젊은 그룹입니다. 이들은 현대 음악에 공과 구분 없이 나타나는 Electronic Music, Live Music를 추구하여 우리음악에 나아가야 할 길을 국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팀입니다.

▶ 공식 유튜브 :
www.YouTube.com/officialJEBI

▶ 공식 페이스북 :
www.Facebook.com/officialJEBI

▶ 공식 앨범 : "재비모리"

▶ 공식 홈페이지 : www.kitpa.net

제작진 및 출연진 Staffs & Artists

한상일 · 연출
정태평 · 리더 /작곡
김범수 · 대금
조선연 · 가야금
심재곤 · 대피리
오단해 · 소리/타악
고준형 · 아쟁
홍민중 · 건반/작곡
김 현 · 피리
김동진 · 해금
이원호 · 대악



밀양시, ‘규제개혁추진협의회’ 열려

기업지원·투자 활성화 위한 불합리한 행태 개선 노력

밀양시(시장 엄용수)는 지역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기업 규제사항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 개선 사례 발굴을 위하여 지난 4월 18일 밀양상공회의소 회장을 비

롯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자 대표와 소상공인 대표,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21일 2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차 협의회에서는 1차 협의회에서 건의된 규제 개선사항들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한 후 향후 추가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협의회에서 밀양시에 건의한 주요 건의사항은 삼문동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비롯하여 농업진흥지역 부지의 산업용지 전환, 환경·전기·소방시설 등의 효율적 점검, 기업체에 부과하는 폐기물분담금 완화, 각종 보조금 신청시 과도한 서류 요구사항

간소화 및 최근에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순환버스 운행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 대상들이 거론되었다.

밀양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며, 타기관 협조사항은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불편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 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밀양시민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농협중앙회밀양시지부 7천만 원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지부장 김종렬)는 5월 22일 밀양시청 시장실에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이사장 엄용수)에 7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하였다.

농협중앙회밀양시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해왔으

나, 2013년부터는 7천만 원을 기탁해 밀양의 향토인재 육성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이 날 기탁으로 농협중앙회밀양시지부는 총9회 4억9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밀양시민장학재단에 기탁하였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밀양구치소 부북초에 장학금전달

밀양구치소(소장 김도형)는 13일 오전 관내 자매결연학교인 부북초등학교(교장 서보중)를 방문하여 부북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우 관계가 좋은 어린이 5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 오후에는 사회복지시설 소망원(원장 서의장구 복면 소재)을 방문하여 성금 20만원을 전달했다.

밀양구치소는 2011년 1월 20일 직원 봉사단체인 '미르피아 보라미 봉사

단'을 창단하여 매월 관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지원하고 매분기 부북초등학교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성금 지급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밀양구치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의 채널을 강화하여 함께하는 열린 교정행정 구현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새마을 어르신 생활지킴이’ 위한 업무협약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에서는 지난 20일 대한노인회밀양시지회와 ‘새마을 어르신 생활지킴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실시하였다.

〈새마을 어르신 생활지킴이〉는 사회의 고령화로 노인가정, 독거노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젊은이의 손길이 필요할 시나 긴급 상황이 발생할 시에 이웃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마을 어르신의 생활지킴이가 되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역 경로당 및 선정 노인가구에 붙여 긴급상황에 연락하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어르신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날 실시된 업무협약을 통해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는 소속 지도자들로 하여금 선정된 각 마을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돕고 주



기적으로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하며,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는 사업에 많은 수혜자가 생길 수 있도록 홍보하며 선정에 협조하게 된다.

대한노인회밀양시지회 안동만 지회장은 “노노케어 사업의 부족함을 메우고 좋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 민경우

지회장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지도자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는 사업 추진을 위해 16개 읍면동의 전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6월20~27일 간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동지역 생활개선회, 환경보호 앞장

밀양시 동지역 생활개선회(회장 김종렬)는 5월 27일 손수 만든 빨래비누 150장을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급식소를 방문 노인들에게 제공하였다.

지난 5월 13일 20명의 동지역 생활개선회원이 참여하여 직접 폐식용유를 재활용하여 손세탁용 빨래비누를 만들었으며, 버리는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빨래비누는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때도 잘 빠져 세탁작업에 효과적이다.

김종희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만든 빨래비누를 지역사회에 기부함으로써 환경 살리기와 이웃사랑 실천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동지역 생활개선회는 5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배운 것을 실천하는 학습조직체로 5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일자봉 주변 자연정화활동, 가곡동 고수부지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삼문동 리치빌 탁구장 생활체육 ‘인기’

지금 7080세대들은 탁구장과 얽힌 사연들이 한두개 정도쯤은 갖고 있을 만큼 성장기때에 여가공간으로 특별한 놀이 문화가 없었던 시절에는 친구들과 문화공간이었던 공간이 새로운 문화에 밀려 없어졌다.

얼마 전 삼문동에 탁구장이 생기면서 탁구동호인들이 매일 저녁 게임과 레슨에 땀을 흘리고 있다.

이곳에는 직접 레슨을 지도해 주는 코치와 개인이 혼자서도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레슨기와 샤워실 탈의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게임을 지도해 주는 훈련프로그램을 이용이 가능해 여가 시간을 이용한 생활스포츠로 즐기기에 손색이 없다.



리치빌 탁구장에서는 탁구동호인들의 관심에 힘입어 동호인 확충과 더불어 밀양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오는 6월 29일 제1회 리치빌 탁구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미리별초, ‘나라사랑 음악회’ 열려 호국 영웅 초청 찾아가는 음악회 호응

밀양 미리별초등학교(교장 이재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1일(토) 저녁 7시 강당에서 밀양관현악단이 주최하고 창원보훈지청과 밀양시, 삼성테크원이 후원하는 제 12회 찾아가는 나라사랑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공연장에는 미리별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시내·외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 하며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50여 명으로 구성된 밀양관현악

단의 웅장한 연주가 강당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미리별초등학교 합창단과 관중들이 모두 마음 모아 아! 대한민국 노래로 음악회를 시작하여 바이올린과 대금협연, 미리별초등학교 합창단의 노래, 재미와 감동을 주는 해피앙상블 중창단의 공연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미리별초등학교 관현악합주단과 밀양관현악단과의 협연은 학생들이 평소 관현악단 활동을 통해 꾸준히 연주 실력을 갈고 닦아온 연습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

한편, 학교를 찾아가는 나라사랑 음악회는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정신과 우리 겨레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 넣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밀양시 드림스타트 부모교실 프로그램 실시

밀양시드림스타트에서는 저소득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양육자 60명을 대상으로 “자녀와 마음을 나누는 마법의 기술 - 감정코칭”에 대한 부모교육 수업을 오는 5월 24일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10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한다. 감정코칭 전문

강사이며 부산대학교 아동가족과 외래교수인 문정희 교수가 “감정에 대한 이해, 감정코칭 대화법”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밀양시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앞으로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드림스타트 이용가정이 사회의 안정된 보호아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천스쿠버 회원 모집

since1997 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밀양 지역의 스쿠버 클럽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스쿠버 레저는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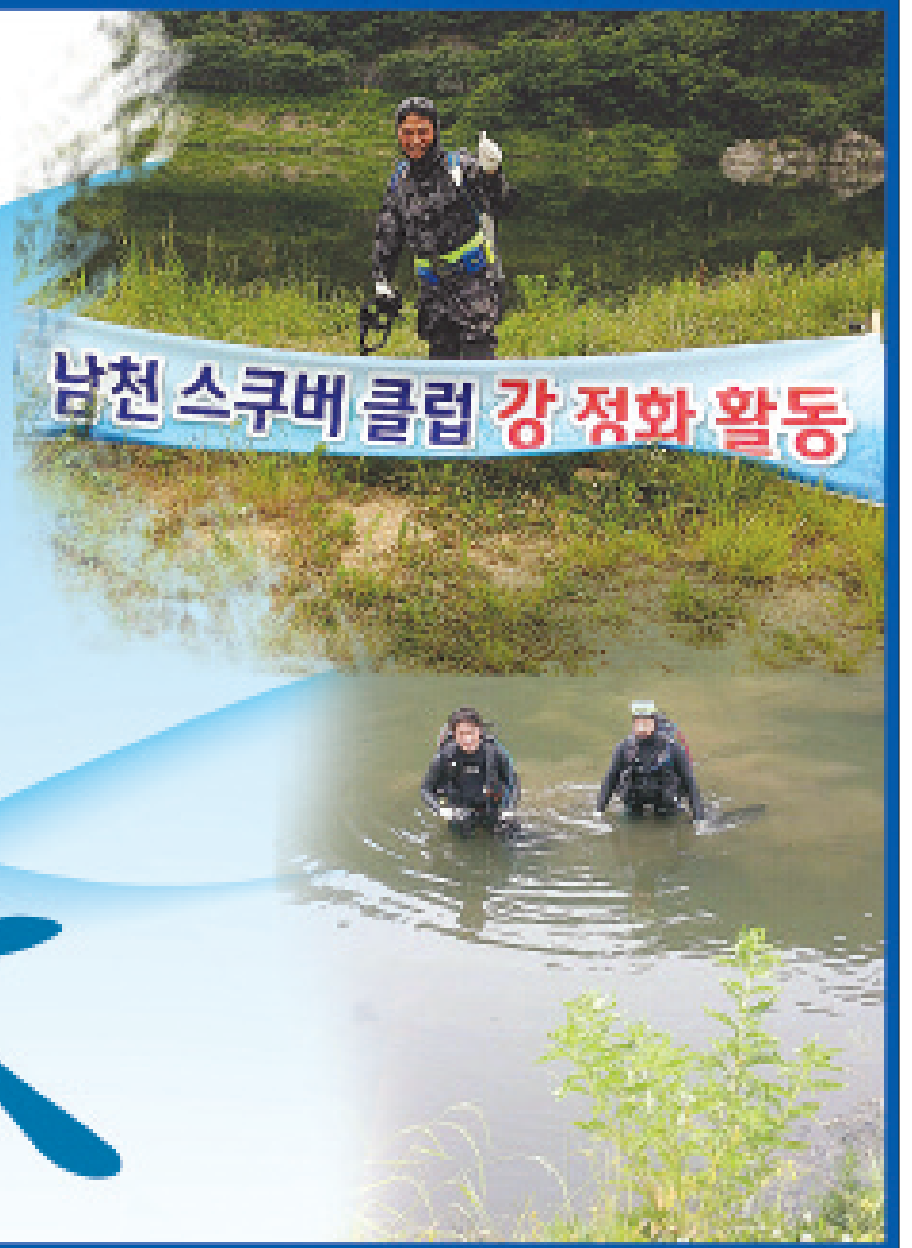
전용장비를 착용하고 즐기는 레저인 만큼 전문적인 이론과 경험이 일반인에게 체계적 훈련을 해 줄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레저입니다.

남천스쿠버클럽은 전문교관과 전문적 장비를 오랜 시간동안 다룬 전문가들 집단입니다.

이전 타, 동호회, 투이 등을 통해 장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문장비는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남천스쿠버클럽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회 장 강 기 수 010-8542-0481
사무국장 정 태 호 010-4523-9880



부끄러움에게 고함

밀양 6월 11일 행정대집행이 있었다.

정부의 포악한 군화발아래

내 집 내 고향 빼앗긴 할머니들이

울고 있었다.

이천여명의 경찰과 오백여명의 공무원과

이백여명의 한전직원들의

냉혹하고 잔혹한 힘에 묶인

가난한 백성들이 있었다

여기 밀양땅 낮은 곳에

인권침해, 부상 ‘전쟁’과도 같은

악몽이 있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집권당의 읍소는 그 어디로 사라졌는가

핵발전소는 일부 체벌 기업을 위한 것일 뿐...

밀양 송전탑건설 반대 싸움은

공동선과 정의를 위한 싸움은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을 희생시키며,

경제적 이익은 소수의 기술 관료들과

체벌 기업이 쟁기는 것 다 알고도 침묵하는

밀양의 부끄러움이어...

“돈은 필요 없다! 폭력은 싫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살고 싶을 뿐이다!”

이 절절한 빈자의 외침이 정부의 폭거앞에서

무참히 짓밟혀 버린 6월11일 밀양땅

“칼에 맞아 죽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에 쇠파스를 감고 있어 숨이 막힌다고

머리가 땅에 닿은 채로 거꾸로 끌려나오기까지 했다”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다고 소리쳐도

아무도 없었다. 먼 곳에서 부끄러운 밀양사람들

입 닫고 귀 닫고 오 부끄러움이어

오 밀양땅이어 슬퍼하라

고향을 사랑하는 자, 정의를 사랑하는 자,

평화를 사랑하는 자 폭력으로 짓밟히는 세상

주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한 채 오히려 정부는

조동과 멸시 가득 찬 폭력으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재산과 건강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임에도

단 한 사람도 보호받지 않은 밀양 땅에

변지수 없는 부끄러움만 있네

부끄러움만 있었네



장 현 호

편집국장

특별기고



휴암 능성

한빛 아리랑 포럼

지구는온 수많은 민족이 함께 살아간다. 그 속에서 우리 한민족(韓民族)은 어느 민족보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살아왔다.

자그마치 9천여 년의 장구한 세월을 “아리랑”을 노래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리랑”에 대한 갖가지 설을 주장하며 그 실체를 밝히려 했다.

그러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폐함을 드러내지 못했음에도 “아리랑” 불렀고 이제 세계인들이 감동하는 노래가 되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라는 아리랑은 한민족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상고사를 전하고 있는『완단고기 檀檀古記』는 신라 시대 때 안함로 스님이 지은 『삼성기 三聖紀』에 우리 민족 시원의 역사를 밝히고 있다.

“오환건국(吾桓建國)이 최고(最古)”라 즉 한국(恒國)의 건국이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 시대를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는 황금의 시대(The Golden Age)라 했다. 이때 환인(桓仁)께서 한국(恒國)을 경영하셨다.

그리고 환인의 뜻을 이어 환웅께서 천부인(天符印)과 오사(五事)를 거느리고 재세이화(在世理化) 하시고 홍익인간(弘益人間) 하시어 신시(神市)에 도읍하셨고 나라 이름을 배달(倍達)이라 하셨다.

이때 “유일신(有一神)이 재사백력지천(在斯白力之天) 하사 위독화지신(爲獨化之神) 하시니 광명조우주(光明照宇宙) 하시었다.” 즉 “한 분의 신이 하늘에 계시며 밝고 밝은 광명을 나타내어 홀로 우주의 조화를 나타내셨다.” 바로 우리 한민족 시원의 역사이다.

백력(白力)으로 우주를 밝고 밝게 비추었다는 구절은 한민족 정신문화의 근원을 밝히는 대목이다.

밝고 밝은 광명은 천지인(天地人)으로 나타나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 만물을 이 세상에 들러낸 것이다.

하나의 광명(光明)으로 시작된 인류 시원의 정신문화를 지니고 있는 한민족은 밝음 즉 광명사상을 지닌 민족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천지인(天地人)으로 화현한 삼태극(三太極)의 사상을 지니고 있기에 일찍이 삼족오(三足烏)를 밝음의 근원으로 표현했다.

이 같은 밝음 즉 광명의 정신문화를 지닌 한민족은 아리랑을 노래한다.

아리랑은 밝음의 대광명(大光明)이기 때문이다. 근자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의 어원을

한민족 정신문화의 근원 ‘아리랑’

- 한민족 정신문화의 광명(밝음)사상에 대한

나눔(共存) · 어울림(共生) · 다스림(共榮)의 보편적 가치실현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인도 남부에 거주하는 드라비다족이 사용하는 타밀어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똑같은 아빠, 엄마, 나, 너 등은 물론 보다는 “빠르”, 나라를 “나르”라 발음하는 등 1천 3백여 단어가 우리말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쓰는 범어연구 저서를 출간한 이태승, 최성규 두 분이 지은 『실담범자입문』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아리랑의 “아(A)”의 어원인데 “아”의 어원은 <본불생 本不生>임을 밝히고 있다.

즉 태어남이 없는 그 이전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리(Ri)”는 <신통 神通> 즉 신령스러운 기운을 의미한다. 또한 “랑(Rang)”은 <지분사分> 즉 나뉘어지거나 나누어지고 어우러짐의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아리랑(Arirang)은 태어남이 없는 그 이전의 근원이 신통함을 지니고 나누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바로 대광명(大光明)이 신통함을 지니고 천지인(天地人)으로 나뉘어 이르는 말이다.

이는 바로 한민족 창세역사의 시원을 담고 있는 노래이다.

경상도 사투리이며 밀양 아리랑의 “아리아리, 쓰리쓰리”라는 표현은 아리(Ari) 즉 신령스러운 모습이라는 뜻으로 바로 그 인류시원의 (백력 白力) 즉 밝고 밝은 모습을 뜻한다.

그래서 아가씨, 아가, 아침, 아줌마, 아저씨 등등의 ‘아’자로 시작으로 하는 우리말은 모

두 시원의 뿌리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가씨, 아줌마, 아저씨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 할 수 있는 근원을 지니고 있으며 어둠 속에서 밝아오는 아침은 새로운 광명을 가져다준다.

나아가 아리랑은 나눔(공존 共存)과 어울림(공생 共生) 그리고 다스림(공영 共榮)이라는 한민족 정신문화의 뿌리를 담고 있다.

하나의 밝음은 천지인(天地人)으로 나뉘고 어울려 세상을 이루고 통치(統治)가 아니라 다스림으로 나라님과 백성이 하나 됨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삶을 추구했다.

따라서 아리랑은 한민족의 한을 담은 노래가 아니라 민족시원의 정신을 담고 있는 노래이다.

더 나아가 나눔과 어울림 그리고 다스림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이제 아리랑의 밝음 즉 대광명 사상으로 세계인과 함께 나누고 어우러져 다스림을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해 가야 할 것이다.

이는 아름다운 아리랑의 선율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대광명(大光明) 즉 밝고 밝은 사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눔과 어울림 그리고 다스림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이화세계 理化世界)하는 것이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홍익인간 弘益人間>의 한민족 정신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인과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한민족의 얼을 나누는 대장정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류구원의 사명이라 할 것이다.

‘밀양3대 신비’ 팸투어

여행블로거 기자단 초청 팸투어... 관광활성화 기대

밀양시(시장 엄우수)는 밀양의 3대 신비인 얼음골 결빙, 땀 흐르는 표충비, 쇠 소리 나는 만어산의 경석과 영남루와 표충사, 아리랑길 등 주요 문화 관광지, 먹거리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위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첫째 날은 전통시장 체험을 위해 상설시장 내 상품 구입과 돼지국밥 시식하고 밀양읍성과 관아를 방문하고 명승 제87호인 월연대에 이어 해산서원을 찾아 600년 된 차나무를 직접 보고 차를 시음하고 저녁은 삼겹살 불고기를 먹었다.

이튿날은 밀양 3대 신비 중 한 곳인 만어산 쇠 소리 나는 바위(경석)을 직접 돌로 두드려 보고 이어 직원관과 옛날 극심한 가뭄 시 기우제를 올렸던 호박소와 얼음골 케이블카를 타고 하늘정원에서 영남알프스를 구경했다.

이어 얼음골 결빙지를 찾아 밀양 3대 신비 중 하나로 주차장에 도착 29℃로 무더웠으나 얼음골 안은 무

려 4℃로

이들은 추위에 떨었고 천년고찰 표충사를 방문했다.

삼일 째 가곡동 유동연 밀양아리랑 3코스를 답사하기 위해 경부선

철길 밑을 지나

가파른 천경사를 올라 금시당 옛 길로 접어들었다.

시 관계자는 “밀양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먹거리 등을 담

은 생생한 현장사진과 글로 인터넷에 알려져 많은 관광객들이 밀양을

알게 되고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호 밀양예총지회장

밀양아리랑학술대회 질의 토론

한국예총밀양지회를 맡고 있는 박영호입니다.

오늘 밀양아리랑 학술세미나를 주최하신 밀양아리랑보존회 관계자여러분과 주제 발표에 궤하 응해주신 항공대 우실하 교수님, 한양대 김영은 교수님, 벤척아리랑 기미양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리랑의 전문지식이 없는사람이 토론에 나선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전승되는 민요아리랑 연구” 발표를 접하면서 우리 밀양아리랑은 남·북한통일아리랑 이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밀양아리랑의 정체성을 찾고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내적으로는 밀양아리랑에 대한 학술적 검토는 오늘 진행을 맡으신 서정재 교수께서 2012년 12월에 밀양예총 예술지 제6호와 2013년 5월 제3회 밀양아리랑 학술강연회에서 소상히 밝힌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밀양아리랑 콘텐츠개발 사업으로 밀양시가 지원하여 경창대희, 밀양아리랑 창작극 발표등을 추진하였으며교육지원청에서 개발한 플래쉬몹을 전국 6대도시에서 동시 발표하기도하였습니다.

외적으로는 2013년 상반기에 국민대통합이란 주제로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의 협연으로 강원, 전남, 경남의 도청소재지 및 정선, 진도, 밀양, 서울 7개소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연된 밀양아리랑은 경기민요 명창이 부르는 밀양아리랑과 밀양민속에 술보존회에서 부르는 밀양아리랑으로 전국에 밀양아리랑을 동시에 알리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제발표 내용이 밀양아리랑 발전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봅니다. 오늘 아리랑 연구에 고명하신 주제 발표자님과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저의 소견을 언급하면서 몇 가지 과제를 도출해볼까 합니다.

먼저 밀양아리랑의 창에 대하여 본 주제 내용의 머리말 마지막 부분의(26페이지) “향토민요와 통속 민요로 보이는 악곡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다가 주시되며 “밀양아리랑계 악곡” 전문(45페이지)을 볼 때 “밀양아리랑은 통속민요에 속하며 주된 연행담당은 경기명창들이다” 라고 제시하였으며 또다른 밀양아리랑 악곡이 수록된(세광음악출판사에서 1987년에 출판한 우리민요 대백과와 선소리산타령보존회에서 1992년에 출판한 한국곡·서도창악대

계)를 비교해 보면 북한아리랑과 동일한 음원이란 생각이 듭니다.

밀양아리랑을 부르는 유형을 보면 가사는 동일하게 사용되나 후렴에서 차이 있다는 점입니다.

밀양민속예술보존회서는 아리랑다콩 쓰리랑다콩 아리랑이 났네 아리랑 어절찌구 잘 넘어간다. 다른 후렴으로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또 다른 후렴은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3가지 밀양아리랑의 후렴을 볼 때 민속예술보존회가 부르는 창은 향토민요 또는 토속 민요로 보아지며 그 외 2유형의 밀양아리랑은 본 내용에서 제시된 통속 민요가 아닌가로 보아지며 특히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는 후렴은 경기민요의 공연에서 부르는 창으로 북한의 라선법과 유사하다고 보아집니다.

주목할 사항은 밀양아리랑 콘텐츠개발에 밀양아리랑을 경기민요로 부르는 것을 배제하는 경향을 볼 때 우리 것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내용 45페이지 주99를 보면 밀양의 옛 노인들은 대중가요 작곡가 박시춘의 부친인 박남포는 권변을 운영한바 있는데 그

가 밀양아리랑을 지었다고하였다. 1988년 가을 밀양지역 현지 조사때 백중놀이보존회 사무실에서 필자가 들은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박남포 선생 묘지(내일동 용평에 있음)의 묘비에(묘비는 1977년 4월 6일 한식날에 성회, 도회(시춘) 두아들이 세운 것임) 박남포 선생은 1917년 밀양예기권변을 설립하여 많은 명창을 배출하였다고 새겨져 있으며 측면에 밀양아리랑의 노래 후렴 끝 부분에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시대적으로 보면 1926년 아리랑 영화 이전에 이미 경기민요로 부르는 밀양아리랑을 가르쳤다는 의미가 있고, 무형문화제 제57호인 (고)안비취 명창도 밀양의 예기권변에서 창을 배웠다는 구절이 있음은 경기민요에서 부르는 밀양아리랑은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부분에서 경기민요의 밀양아리랑과 북한의 밀양아리랑은 밀양예기권변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보아 지는데 발표자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밀양아리랑보존회에 주문 드리면 밀양아리랑 콘텐츠 개발과 연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밀양아리랑의 창을 가리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양민속예술보존회에서 부르는 토속 민요는 기능 그대로 계승 발전 시키고 주제내용에서 제시한 북한에서 불려지는 미선법과 라선법에 대한 음원과 같이 악곡이 있는 밀양아리랑은 고유한 음원 제작과 자격을 갖춘 전문교육사를 지정하여 전



지난 17일 박희학 밀양아리랑 보존회장과 박영호 밀양예총 회장이 고 박남포씨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 묘소는 용평리 아산에 위치하고 있다.

시민이 배울 수 있는 체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하며, 연가자는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일정한 장소에서 배워갈 수 있도록 소리청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별도 시설이 없으니 우선 영남루 누각에서 일정하게 운영하는 방법등을 찾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의 악곡이 밀양예기권변에서 창작되었음이 추측되는 바가 크

므로 그 뿌리를 찾는데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김영은 교수님의 연구발표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북한에서 밀양아리랑이 공연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명창으로 지정된 무형문화제가 존재하는지와 밀양아리랑을 포함한 아리랑을 북한 주민에게 전승하는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기바라며 밀양아리랑이 성장할 수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인력 구인구직 웹사이트 활용 하세요”

밀양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에서 신청

밀양시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는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농촌에서 일하고자 하는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농업인력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웹사이트 운영방식은 구인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농작업의 종류, 필요한 인부의 성별, 작업시간, 일용노무비, 연락처와 장소 등을 입력하면 구직자가 본인에 맞는 농작업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구직 희망자도 본인이 가능한 농작업의 종

류, 성별, 작업시간, 희망노무비, 연락처와 희망지역을 등록해 두면 농작업 인부가 필요한 농가에서 연락하여 일손을 구할 수 있다. 농촌인력에 대한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열린광장에(http://nongcoop.mir

yang.go.kr/main/)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인력 구인구직 웹사이트가 농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조명나방과 멸강나방은 방제 시기가 중요해요!”

농촌진흥청, 방제 요령 제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옥수수과 사료작물에 피해를 주는 조명나방과 멸강나방의 방제 요령을 제시했다. 조명나방은 옥수수의 잎과 줄기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이삭썩음병'을 유발하여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킨다. 조명나방은 어른벌레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후 애벌레가 부화하는 시기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애벌레 발생 초기에는 옥수수 잎을 갉아먹은 흔적을 볼 수 있으며, 이후에는 갉아먹은 줄기 속에 배출한 배설물로 확인할 수 있다. 방제 방법은 조명나방용으로 등

록된 약제를 1주일 간격으로 2~3회 뿌려주면 된다. 농촌진흥청 작물환경과 정진교 연구사는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조명나방 발생시기가 빨라져 남부 지역 6월 초, 중부 지역 6월 중순이 방제 적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멸강나방은 수시로 관찰해 애벌레를 발견한 즉시 방제해야 한다. 방제는 멸강나방용으로 등록된 약제를 옥수수나 사료작물 줄기와 잎에 골고루 묻혀 뿌리면 된다. 사료로 이용할 경우에는 독성이 강하거나 잔류 독성이 있는 약제를 피하고 살충제를 뿌린 경우는 2주



뒤부터 사료로 쓸 수 있다. 멸강나방은 주로 중국에서 해마다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 7월 중순부터 하순에 날아오는 해충이다. 농촌진흥청 조치사료과 이상학 연구사는 “멸강나방은 피해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수시로 관찰해 애벌레가 발견되면 서둘러 방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버섯 로열티’, 국산 품종 개발이 답이다!

지난해 보급률 46%, 사용료 30억 원 줄여... 수출 국가 기대

해마다 우수한 품질의 버섯이 개발되면서 국산 품종 보급률은 높이고 사용료(로열티)를 줄이는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수출용과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우리 버섯의 개발과 보급에 힘쓴 결과, 지난해 국산 품종 보급률이 46%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버섯 산업은 병 재배 기술의 발전으로 대규모화 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외국품종이어서 사용료 부담이 컸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사용료를 줄이고 품종 보급률을 높일 수 있게 개발과 보급을 위한 버섯연구사업단(2009~2013)을 구성했다. 5년 동안 버섯 60품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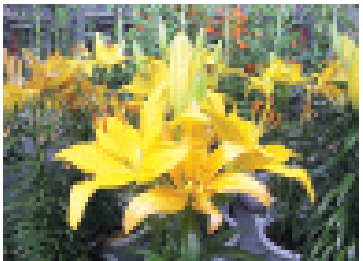
개발해 2008년 30% 수준이던 국산 품종 보급률을 지난해 46%까지 끌어올리며 30억 4,000만 원 가량 사용료를 줄였다.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대표 품종은 양송이 '새아', '새정', 팽이 '우리1호', 아귀노타리 '비산1호' 등이 있다. 특히, 팽이 '우리1호'는 관리가 쉬워 일본 품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수출 가능성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귀노타리 '비산1호' 품종은 까다로운 재배 방법과 수량이 적은 '큰느타리2호'의 단점을 보완해 개발돼 새송이 품종을 대신해 수출할 수 있다. 더욱이, 충남 부여군에서는 양송이를 특구화 하고 새 품종 '새아', '새

정', '설강'을 보급해 2010년 4%에 불과했던 보급률을 2013년 27%까지 높였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품종보호전략종자개발(GSP) 사업으로 버섯 품종 GSP 사업은 버섯 품종육성 기반 구축(2013~2016년)과 버섯 종균 생산 산업화(2017~2021)로 추진되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144품종을 육성하고 60% 보급률을 목표로 한다. 농촌진흥청 버섯과 공원식 과장은 “품질 좋은 국산 버섯 품종을 개발하고 널리 보급해 농가 소득 향상을 물론, 버섯 산업의 활성화로 사용료를 받는 수출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초저온동결 꽃 다시 피우는데 성공 해동 후 ‘보존된 나리’ 모양 변화 없어

영하 196℃에 보존돼 있던 나리 유전자원이 꽃을 피웠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초저온동결 기술로 보존하고 있던 나리 유전자원을 해동 후 온실에서 생육한 결과, 원본 식물체와 형태학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꽃을 피운 나리 유전자원은 영하 196℃의 액체질소에 보존했던 줄기생장점을 해동해 온실에서 생육한 것이다. 현재 보존 중인 나리 유전자원의 일부인 160점을 해동한 결과, 평균 재생률은 56.7% 정도로 나타났다. 초저온동결 보존법은 이론적으로 영양체 유전자원의 영구 보존이 가능하며, 영양체 유전자원을 노지 대신 액체질소 저장 탱크에 보존하기 때문에 토지와 노동력 등에 따르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노지에서 나리 유전자원 1점을 보



존하기 위해서는 연간 10,800원이 들지만 초저온동결 보존법을 이용하면 1,300원으로 노지보존의 1/8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 중인 나리 유전자원은 3,268점으로 연간 약 3,000만 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넓은 면적의 노지 대신 액체질소 저장 탱크에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집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편, 영양체 유전자원은 종자(씨앗)로 번식하지 않고 가지, 싹 등 식물체 일부로 번식하는 유전

자원이다. 영양체 유전자원은 노지 보존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병해충에 쉽게 노출돼 장기 보존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정윤 연구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전적 변이 유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 초저온동결 보존법을 이용한 영양체 유전자원 장기보존 실용화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토마토 2줄기 재배’로 농가 소득 높인다

종묘비 줄고 상품성 있는 열매 많아 농가 호응도 높아

토마토 재배의 생산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보급돼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낮은 생산성과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는 토마토 재배 농가를 위한 '2줄기 재배 기술'을 개발·보급해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토는 기능성이 많은 참살이 식품으로 연중 수요가 많아 재배 면적이 늘고 있다. 2012년 토마토 시설 재배 면적은 6,344ha, 생산액은 9,997억 원으로 채소 중 4번째로 많다. * 토마토 재배면적 : ('01) 3,348 → ('12) 6,344ha / 생산액 : ('01) 2,162억 원 → ('12) 9,997억 원 우리나라에서 토마토 재배는 기후 조건으로 인해 대부분 1년에 2기작 또는 비가림 하우스에서 1기작의 단기 재배를 하고 있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낮다. 더욱이 토마토 종자가 격이 비싸 전체 생산비에서 종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토마토 2줄기 재배법은 종자가 싹이 트 후 분얼이 3~4장 나오면 딱잎만 남기고 나머지 잎들은 생장점 부위를 손질(기적삼)한다. 그 후 여름엔 3~4일 후, 봄·가을엔 7~10일 후면 양 딱잎 사이에서 2개의 결실이 나온다. 이 묘를 길러 본밭에 옮겨 심은 뒤 2개의



유묘적심: 본잎 3~4매기, 딱잎만 남김

신초의 발생과 성장



유묘적심 2줄기 묘 정식

유묘적심 2줄기 묘 수확기

줄기를 유인해 재배하는 방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을 2010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생산성이 매우 좋고 종묘비도 크게 줄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2010년 전북 남원시 토마토 재배 5농가에 2줄기 재배법을 적용한 결과, 기존의 재배 방식보다 27% 수량이 늘었다. 2011년에는 남원시 35농가에서 2줄기 재배를 한 결과 기존 재배 방식보다 62% 수량이 늘었고, 아주심기 한 개체 수도 21% 적어 육묘비도 절감됐다. 지난해부터는 남원시의 모든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가 2줄기 재배 기또한, 지난해 인천 강화군에도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 일반 토마토와 방울토마토의 수량이 각각 11%, 19%씩 늘었다. 특히, 상품성 있는 과일이 15% 늘어 일반 토마토 농가의 소득이 40.1%, 방울 토마토는 초기부터 수확 후까지 자람세가 안정적이며 과일이 균일하게 자라 병해충이 적고 상품성 있는 과일 수량도 많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채영 연구사는 “신선하고 질 좋은 토마토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2줄기 재배 기술처럼 농가 실정에 맞는 기술을 확대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미도가든



※ **활성밤밭 “다사랑민물식당”이 부북면 우체국 옆 “미도가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연산만을 고집하는 것이 음식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예약문의 **055-356-9997**

특미 : 추어탕, 백숙, 붕어찜, 매운탕(민물전문)

◆ 조리시간이 일반음식과 달라
사전에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사회 구현

밀양교육지원청,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환)은 6월 11일(수)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깨끗하고 청렴한 밀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감, 행정실장 및 교육지원청 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반부패·청렴 의지를 다지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기획된 이날 교육은 경상남도교육청 유원상 감사관이 맡아 「반부패·청렴정책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의 진행하였다.

유원상 감사관은 공직자의 비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청렴한 교육사회 구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동참할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영환 교

육장은 “밀양교육지원청은 청렴하고 투명한 밀양교육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밀양교육계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교육지원청은 매년 2회 이상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올해도 이번 교감 및 행정실장 청렴교육을 시작으로 학교장 청렴교육 및 지방공무원 청렴교육 등을 기획 중에 있다.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제4회 경남상업정보실무능력경진 대회

밀성제일고, 수상자 대거 배출... 경남 제일 입증

지난 6월 3일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4회 경남상업정보실무능력경진대회에서 밀성제일고(교장 조해동)는 비즈니스영어(한성주), 정보활용능력(김은재), ERP(김민희)종목에서 금상(1위)을 수상했다.

밀성제일고는 이번 대회에 회계실무, 정보활용능력, 소포몰디자인, 비즈니스영어, ERP, 금융실무, 취업진로포토폴리오, 창업아이템 등 8개

종목에 참가하여 금상 3명, 은상 5명, 동상 6명, 장려 2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는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발굴·육성하여 상업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사회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종목별 금, 은, 동상 수상자는 8월말 전남에서 실시되는

전국상업정보실무능력경진대회에 출전하게 되고, 밀성제일고는 작년 경남대표 8명에 이어, 올해에도 경남 대표로 14명이 전국대회 출전권을 획득하였다.

작년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 수상으로 밀성제일고는 경남 제일의 상업계 특성학교임이 입증되었고, 교육비전인 사랑과 감동을 실천하는 학교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장애학생 교육 지원의 첫 걸음

2/4분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관내 영아·유·초·중학교 학생들의 특수교육 선정·배치를 위한 『2014학년도 2/4분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6월 10일(화) 오후 4시부터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실에서 개최하였다. 2/4분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줄 위원들의 위촉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밀양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의사, 사회복지사, 관내 학교의 교감, 초·중등 특수교사, 학부모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2/4분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는 윤민우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등 위원 6명이 참석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이번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에는 관내 유·초·중학교 학생 15명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를 의뢰하였다.

진단·평가 실시 목적달성 및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진단·평가 검사도구의 실시 및 해석이 가능한 관내 특수교사 10명으로 구성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팀에서 진단·평가를 의뢰한 학생들에 대한 검사, 관찰, 면담을 통해 적격성을 판정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그 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요구에 맞는 정확한 진단·평가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해본다.

김영환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를 위한 진단·평가를 적극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선정·배치 과정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특수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우리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57회 경남과학전람회 지구과학부문

밀양중 김민재 학생 특상 수상!

밀양중학교(교장 이병태) 2학년 김민재 학생은 2014년 6월 10일(화) 3시 경남과학교육원에서 열린 제 57회 경남과학전람회 시상식에 참가하여 제 57회 경남과학전람회 특상을 수상했다.

김민재는 ‘백악기 진동층, 함안층에서 나타나는 건열 패턴과 고환경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진동, 고성, 함안 지역의 화석을 탐구하고, 머드를 이용하여 건열 패턴을 실험, 관찰하여 백악기 진동층, 함안층에서 나타나는 건열 패턴과 고환경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높은 평가를 얻게 되었다.

제57회경남과학전람회는 2013년 12월부터 경남과학교육원에서 주최한 행사로 그 동안 작품계획서 심사, 작품제작 중간 보고서 심사, 작품 설명서 심사, 면담 심사의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졌다.

과학전람회에서 중등부에 물리, 화학, 동물, 식물, 지구과학, 농림수산, 산업 및 에너지, 환경 총 9개 분야에서 특상이 주어졌다. 특상중에서도 지구과학 분야에서 김민재학생이 경상남도 대표로 선정되어 제60회 전국과학전람회에 출전하는 영광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이병태 교장은 “김민재학생은 과학 분야에서 남다른 관심과 뛰어난 재능이 있다. 특히 관심 있는 화석조사를 위해 직접 현장답사를 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정신은 과학도로서의 자질이 엿보인다. 장차 과학 분야에서 한국을 이끌 동량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쟁쟁한 밀중인의 명예를 높여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코티처 연수 실시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환)은 6월 13일(금) 15:00~17:00에 밀양교육지원청에서 2014.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코티처 연수를 실시했다.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의 의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코티처의 원활한 소통으로 효율적인 학습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원어민과 코티처가 협력수업을 통해 다양한 영어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으로 영어수업방법 개선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김영환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코티처의 교수역량 향상으로 교실수업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학생들의 영

어에 대한 흥미가 유발되어 학력향상에 기여하고, 코티처가 자기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협력 수업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토론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연수 강사는 곤양고등학교 정순철교감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코티처의 바람직한 협력수업’을 다양한 학습의 방법으로 학교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연수에 참여한 밀양여자중학교 교사 강민정은 “코티처가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원어민보조교사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수업의 질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것 같다.”고 말했다.

책 속에서 길을 찾다

밀양, 독서·논술담당교사 역량강화연수 개최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환)은 2014년 5월 27일(화) 밀양 관내 초·중등 독서교육 담당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독서·논술교육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독서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독서담당 교사의 독서교육 능력을 함양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키며, 도록색과제(책 읽는 학

교)의 바람직한 독서교육의 방향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연수강사는 문학박사이신 경원중 정순공교장으로 연수 주제는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독서·논술 지도 방안 연구이다.

이번 연수의 특징은 각급 학교에서 독서와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지도교사의 수준

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독서·논술 능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의도로 진행됐다

또한 초, 중등학교 독서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독서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지도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환)은 인사말에서 “학교 현



장이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독서·논술 담당자 연수에 열정을 갖고 참가한 담당선생님들을 볼 때 ‘도민과 함께하는 책 읽는 경남’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기쁘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독서교육이 특실한 결실을 맺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자유로운 광고

이곳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개방된 광고란입니다. 의견, 주장, 축하, 행사알림, 청혼, 결혼, 부음, 감사인사 등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타인의 명예훼손만 아니면 됩니다. 광고료는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형편대로 알아서 주시면 됩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하신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광고문안을 보내주시면 알아서 실어드립니다.

-광고료 입금계좌 : 농협 351-0638-1163-13
-전화 : 055)351-3211

-팩스 : 055)351-3212
-마감 : 매일 오후 4시

상가임대

010-4285-8119

밀양시 시청로 1길 31
현, 식당 54평 1층 보증금 2천 월60만

삼미리 청정 산나물축제

작은나무 밑에서
부드러운 잎까지 맛있게 먹는
다들 좋아하죠! 산나물 축제에 오세요!

010-4616-4346

아이 핑거네일

네일아트, 손케어
발케어, 젤아트

삼문동 푸르지오아파트 근방

010-3643-0700

전국꽃배달체인점

밀양화원

011-865-5556

낙동강 생태계 복원 위한 토속어종 방류

밀양시 ‘낙동강 토속어종 방류행사’ 개최

밀양시(시장 엄용수)는 지난 11일 밀양시 관할 낙동강수계 삼랑진에서 밀양시 관계자 및 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토속어 치어방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방류한 어종은 어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정착성 어류인 메기치어 16만 마리와, 참치 치개 50여만 마리 등 21만여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4대강 정비사업 후 차츰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시점에서 토속어종을 방류함으로써 어자원 회복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양시는 해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우량종묘의 방류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증식하여 시민 레저활동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밀양시는 오늘 방류한 어종 외에 앞으로도 붕어, 잉어, 동자개 등 토속어종을 추가로 방류하여 낙동강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토속어종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방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치어방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민물고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를 방류한 수면에 대하여 방류한 어종을 남획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해 갈 방침이며,

어민과 주민들의 어류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미리벌초, 탈북민에게 듣는 생생한 통일이야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

밀양 미리벌초등학교(교장 이재오)는 5월 30일(금) 5, 6학년 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밀양시협의회 주관 ‘2014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북한학생들의 생활과 학교문화’란 주제의 이날 강연을 위해 초청된 통일부 통일교육원 이성희 강사는 2010년 탈북한 탈북민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일상생활과 소학교의 교육실태, 북한 어린이들의 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북한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북한의 실태를 전했다.

또한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의지를 제고하고, 통일이 왜 필요한지, 통일을 이루어질 경우 국가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을 생



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김모(5학년) 학생은 “우리가 몰랐던 북한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서 통일이 되어 다 같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오 교장은 “학생들이 북한 주민과 어린이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분단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며, 나아가 통일에 대한 큰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밀양시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통한 예방교육

밀양시(시장 엄용수)는 지난 13일 오후 2시에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시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인터넷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인터넷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가 진단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경남도 인터넷중독예방대응센터의 전문강사인 권영심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으며, 교육 내용은 인터넷중독 위험요소와 유형과 약, 인터넷중독 인식 및 자기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 인터넷 사용정도의 객관적 분석 진단, 인터넷중독 극복을 위한 생활실천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시 관계자는 “정보화 기술의 급속



도로 발달하면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번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밀양소방서, 이웃사랑 소중함 일깨워

자원봉사단체 소방안전교육 실시

밀양소방서(서장 전종성)는 9월 삼문동 밀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화재예방 및 대처방법, 소방시설 사용법, 119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익히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의 소중함을 일

깨워주는 자원봉사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임무와 서로 다르지 않다”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소방안전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구독신청·광고문의
TEL 055)351-3211

밀양시보건소, 상황대처 능력 배양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진행

밀양시보건소(소장 천재경)는 오는 1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응급 환자발생시 최초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직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학교 보건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급차 운전원, 산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체육시설 종사자, 보건소 심장자동제세동기 관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응급의료의 중요성

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인 응급활동의 원칙, 각종 질환의 응급처치와 구조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기본인명 구조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에서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인명구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밀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대상 동참 당부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 홍보

밀양소방서(서장 전종성)는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한 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2015년 2월 23일

까지) 유예됨에 따라 기한 도래 전 영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밀양시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269개소로 가입 유예대상은 16개소이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

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다중이용업주가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밀양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겠다며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밀양아리랑신문이 자영업자를 응원합니다.

이 광고란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면입니다. 광고료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형편대로 알아서 주시면 됩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하신 후 이메일로 광고문안과 사진파일을 보내주시면 알아서 실어드립니다.

- 광고료 입금계좌 : 농협 351-0638-1163-13 (주)밀양아리랑신문

- 전화 : 010-4030-4474 현천호 기자
- 메일 : ho3137@naver.com
- 팩스 : 055-351-3212

대우목재.
합판·철물

SINCE 1972
42년 전통의 밀양 대표
건축목재 자재 취급 전문점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13
TEL : 055)351-3290
H.P : 010-5555-8111
onevoice65@daum.net

신축개축, 부분 인테리어 전문

한-인테리어

010-2241-3122

당신의 인생자금
황금비율로 맞춰보세요

삼성생명
김재용 MFC
010-2981-7081
1588-3114

참편한 부엌가구

010-2899-1193

대형공사장·축대·옹벽·절개지 등 153개 시설 대상

우수기 대비 안전점검 ‘총력’

밀양시(시장 엄용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재난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의식 제고 및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수기 대비 대형공사장, 축대·옹벽·절개지, 노후아파트 등 15개 분야 153개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6월 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8일부터 3일간은 사포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장을 비롯한 대형공사장 등 10개소에 대해 밀양시 손태성 부시장이 직접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시설전반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금번 점검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하고 보수·보강 등 장기적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기 예산확보 등을 통한 불안전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밀양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기별·계절별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내 고장 산~ 종남산에 오르다

상남초, 종남산 오르며 나를 이기고 미래의 꿈을 키워

상남초등학교(교장 장창표)는 5월 28일 전교생(27명)과 유치원생(5명)이 봄철 진달래 축제에 유명한 학교 내 상남면 남산리에 위치한 종남산(해발 663.5m)을 최종 목적으로 내 고장 산 오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내 고장 산 오르기 행사는 우리 가까이 있는 내 고장의 산을 등산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일깨워 애郷심을 길러주는 물론이고, 등산을 통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길러주기 위해서다. 또한 이 행사는 올해 본교가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건강한 체중관리 중점 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산행 도중에 만난 한 등산객은 “오늘 같은 더운 날씨에는 어른들도 오르기에 힘든 종남산을 이렇게 씩씩하게 등산하는 상남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보니 정말 대단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큰 일꾼이 될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상에 올라 종남산과 대자연에 주는 고마움, 우리고장의 여러 지형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기념 촬영도 하고 나라사랑, 고장사랑, 학교사랑 만세삼창으로 행사를 마

무리 했다.

4학년 임명준 학생은 “등산하는 동안 좀 힘들긴 했지만, 우리 학교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름답고 경치 좋은 산이 있는 줄 몰랐고, 이 산을 내가 직접 올랐다는 것이 정말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밀양소방서(서장 전종성)는 22일 관내에 위치한 ‘하늘사랑’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주요내용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추락, 화상 등 각종 안전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요령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

또한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용 마네킨을 이용한 체험교육을 실시해 직접 체험을 통한 실습을 해보며 심폐소생술의 의미와 필요성, 응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요령에 대해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 및 재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생활속 안전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로 한지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다양한 생활과 연관된 공예품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문화 속에 남아 있는 한지 공예 [지(紙)공예]이다.

일반적으로 지공예, 한지 공예, 지물 공예, 종이 공예라고 부른다. 오래전부터 우리 생활에 필요한 소품인 지공예 작품으로 등을 만들었는데 선조의 얼과 지혜와 멋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장승과 솥대야! 내 소원을 들어줘!

예림초, ‘소원을 들어주는 장승과 솥대 만들기’ 행사 열려

예림초등학교(교장 고영판)에서는 5월 29일(목) 1, 2학년 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장승과 솥대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미리별민속박물관 지원으로 이루어진 장승과 솥대 만들기 행사는 학생들이 평소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우리의 전통 문화인 솥대와 장승을 만들어 소원을 비는 활동으로 조상들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날 수업은 담임교사와 미리별민속박물관의 강사가 함께하는 협력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장승과 솥대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들어보며 조상들의 삶과 문화를 간접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소원을 들어줘! 장승과 솥대야!’ 프로그램에 참여한 2학년 정수아 학생은 “옛날 이야기책에서 보았던 솥대와 장승을 직접 만들고 선생님의



로부터 조상들의 생활모습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장승과 솥대를 만들고 나서 내 짝과 친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내 소원이 꼭 이루어져서 주말에는 짝과 함께 놀러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고영판 교장은 “앞으로도 학교 인근에 위치한 여러 단체,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활동안으로 끌어들여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예림초, 리코더 오카리나 미니 콘서트

초등 맞춤형 공모형 직무연수 종강

예림초등학교(교장 고영판)는 6월 12일 초등 맞춤형 공모형 직무연수 종강식으로 ‘리코더와 오카리나 미니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리코더와 오카리나 앙상블 실기’를 통해 교사의 음악적 감성을 함양하여 행복 수업을 만들어나가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지난 5월 22일 연수 개강식에서 리코더, 오카리나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협연 공연 영상을 보며 배우의 의지와 열정을 다졌던 교사들은 16시간의 연수가 끝난 이날, 기타 반주와 함께 리코더로 부르는 ‘Moon River’로 미니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어서 ‘Amazing Grace’, ‘조개껍질 묶어’ ‘딱따구리 폴카’를 오카리나

로 연주하였고, 김성진 교사의 특별 공연 ‘Perhaps Love’와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독주가 이어졌다. 열띤 공연 열기는 기타 반주와 함께 ‘여행을 떠나요’를 합창하며 끝을 맺었다. 2주동안 16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실기 연수가 멋진 연주회 무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성실함과 연수 시간 외에도 틈틈이 연주를 하며 실력을 쌓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3년 교사 관악 실기 연수, 2014년 리코더와 오카리나 앙상블 실기 연수로 이어지는 예림초등학교 교사들의 음악실기연수에 대한 열망은 이날 미니 콘서트를 아름답게 장식한 최고의 앙상블이었다.

만성불량 ZERO 실천 특강 밀양상의

밀양상공회의소(회장 이홍원)는 22일 상의 4층 대회의실에서 산업공학박사인 오산대학교 한정오 교수를 초빙하여 중소기업의 만성불량 ZERO 실천을 위한 과학적 개선 노하우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사)IE협회, 한국비즈니스컨설팅(주)의 후원으로 밀양·청영소제(주)한국화이버를 비롯한 8개 기업체 임·직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우리지역 기업들에게 초일류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한 교육으로 기업의 생명은 혁신이고 변화이며 품질은 과학이고 실천이란 교육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은 품질에 의해 좌우되며 초일류 품질의 제품생산을 위한 방법론을 학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알찬 교육이 되었다고 한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근무지 가까운 곳에서 권위있는 강사의 강의를 듣게되어 매우 뜻깊은 교육이 되었을뿐 아니라 회원 기업체 임직원과 상호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밀양상공회의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초동초, 전통과 현대에서 배우는 생활의 지혜!

2014 1학기 학부모교육

초동초등학교(교장 이종수)는 5월 22일과 29일, 1학기 학부모 교육으로 학부모들의 다양한 관심을 반영하여 전통에서 배우는 한지공예와 현대에서 배우는 천연화장품 만들

기 등 이색적인 연수를 실시하였다. 첫째날(5.22)은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을 천연재료로 만들어 보았다.

수입화장품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고가의 에센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었지만,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얼마나 많은 화학성분이 들어있는지 알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다.

둘째날(5.29)은 한지 공예를 하였다. 우리의 선조는 질 좋은 종이



Since 1987

밀양돼지국밥

향토음식의 명가

MBC, TBC, SBS, KNN 출연한 집
조선일보, JAPAN Food, 서울신문, 동아일보

“항상
감사합니다”

예약문의

354-9599



단다영어교습소
TEL.351-0535 H:P.010-2671-7317
밀양시 삼문동
청구상기3동 101호

**초·중·고
내신·입시
대비 수업**

밀양서 40년 만에 ‘야생여우’ 발견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 찍은 사진과 동영상 공개

지난 5월 19일 오후 밀양의 한 야산에서 야생상태의 여우가 발견됐다. 발견한 이는 환경생태관련 연구를 위해 야산에 생태계 조사를 하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원내사진)가 쫓고러 앉아 졸고 있던 여우를 발견하고 이를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환경관련단체에 자료를 제공을 해 언론에 공개되었다. 여우는 환경부 지정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동물이며, 국내에서 살아있는 야생 여우가 발견된 것은 1974년 지리산 밀렵꾼이 사냥해 박제로 만든 개체가 마지막 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이후 2004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숨겨 있는 여우 사체가 발견된 사례가 있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에서 살아있는 개체 발견을 위해 여러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추가 개체 발견은 없었다. 이번 밀양에서 발견된 야생 여우



를 종복원기술원에서는 현지에서 CCTV를 설치하고 확인 작업을 시행한 바, 야행성인 여우의 행태 특성상 야간에 활동하고 있는 여우가 카메라에 찍혀 개체의 존재가 확인은 되었다. 하지만 종복원기술원측은 토종 여우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입

장이라 최근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제보를 받은 여우 사진과 함께 토종 야생 여우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종복원기술원측은 “해당 개체는 여우가 맞으며, 최소한 복원 사업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토종 여우로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토종 여우와 수입된 여우는 외모만으로 확인이 힘들고 외국에서 잡아지나 새끼고양이인 줄 알고 수입을 해 막상 키우다 보면 여우인 경우가 있어 토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라고 밝히며, 털이나 DNA검사까지 해 봐야 토종 여우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홍 교수는 “보호지역 연구나 생물서식지 정책관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 소백산에서 방사한 여우 2마리가 적응하지 못하고 폐사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만약 민가에서 탈출한 불법 수입 개체이더라도 자연에서 적응한 훌륭한 사례”라며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여우의 서식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이 사례가 국내 자연환경 관리에서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한국문학의 거목 이문열 밀양시 방문



“밀양은
내 꽃피는 유년의
추억이 담긴
뜨락 같은 곳”

지난 18일 밀양시 홍보잡지 창간호에 소개된 이문열 작가가 밀양시의 초대로 그의 작품 속에 그려진 밀양의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이문열 작가는 엄용수 시장 등 밀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그의 대표작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삼문동 문치길(밀양교 입구에서 삼문송림까지)을 함께 걸으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했다. 이문열 작가는 “밀양은 1958년에서 1961년 사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4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내 꽃피는 유년의 뜨락’ 같은 곳”이라며 “살던 땅과 처음으로 ‘교감’을 느낀 따스한 동네가 바로 밀양”이라고 회고했다.

이문열 작가는 “밀양시 초대에 감사를 드린다”며 “나의 작품 속 밀양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문열 작가는 지난 2003년 ‘시대와의 불화’로 절판

했던 대하소설 ‘변경’(총 12권)을 개정하여 오는 7월초 민음사에서 출간할 예정으로, 소설의 앞부분에 밀양에서 보낸 이문열 씨의 아름다운 유년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제8회 밀양갯잎가족한마음체육대회

명품화된 전국 최고의 갯잎 생산 노력

밀양지역 갯잎생산 농가들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기 위한 제8회 밀양갯잎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오는 6월 21일 산의 체육공원(산외면 금곡리 소재)에서 개최된다. 밀양시갯잎연합회(회장 오홍식)가 주최하고 밀양시, 밀양시의회,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 NH농협 밀양시지부, 밀양농협, 상동농협, 산동농협, 북북농협, 동부광천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엄용수 밀양시장, 조해진 국회의원, 박필호 시의회의장, 김수환 경찰서장을 비롯해 갯잎가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밀양갯잎가족 한마음체육대회에서는 배구, 명랑운동회, 갯잎 빨리뛰기 등 회원가족간 협동과 화합을 다지는 다양한 게임 및 작목반별 노래자랑과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

사가 준비되어있다. 또한 밀양갯잎을 활용해서 만든 22종류의 떡, 빵, 음식 등을 개발하여 전시 및 시식을 함으로써 밀양갯잎의 다양한 활용과 밀양갯잎 특유의 향을 떡과 빵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먹거리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갯잎에는 파이토일이라는 성분과 비타민A, 비타민C, 칼륨, 칼슘, 철분 등 여러가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항암효과, 항산화작용, 심혈관질환, 빈혈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양의 갯잎농가는 전국 생산량의 40%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밀양갯잎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 화합하고 단결하여 명품화된 전국 최고의 갯잎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천호 기자 ho3137@naver.com



밀양시장 별정직 비서가 선거업무 적발

감사원,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 발표

엄용수 밀양시장의 별정직 비서가 선거관련 일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9일 감사원은 지난해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정감사는 공직자 직무관련 이권개입이나 금품수수 등 비리정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진행된 것이다. 밀양시는 지난 2010년 6월 8일 시장 측근인 ㄱ 씨를 별정직 6급 상당 비서요원으로 특별채용했으며, ㄱ 씨는 지난해 8월 1일 퇴사

했다. 감사원은 “ㄱ 씨는 출장 중에 2014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유세차량 예산작성, 신년교례회 명부 작성과 관리, 모 산악회 체육대회 개최 등 공무와 무관한 선거 관련 일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옛 밀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 규칙(2011년 1월 5일 폐지)’에 따라 별정직 6급 비서를 채용하려면 그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자격

이 없는 ㄱ 씨를 채용했다. 또 ‘밀양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하게 돼 있으나 ㄱ 씨는 근무기간 동안 거의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5시 사이 관내 여문·동향파악을 위한 출장을 나간 것으로 돼 있지만 출장 시간 외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한 달에 2~4회 정도 사무실에 들른 것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밀양시장에게 비서요원 특별채용과 복무지도·감독 부적정에 대해 주의조치를 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6.4지방선거 밀성고등학교 동문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병희 경남도의원
(24회)

최남기 밀양시의원
(19회)

조인중 밀양시의원
(22회)

허홍 밀양시의원
(28회)

김상득 밀양시의원
(32회)

정정규 밀양시의원
(33회)

밀성고등학교 총동창회